

2018년 첫 번째 호 (통권 22호)

# 별마을

(星村, 별 성 마을 촌)

# 이달의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 2018년 별 그리고 희망...

건강

-고영희-

여행

-장순임-

혼자걷기

-김미경-

No!감기

-박혜영-

솔로탈출

-최원준-

일탈

-노대용-

취업

-이영준-

처음처럼

-박성호-

로또당첨

-배수경-

가족

-조창희-

희망

-김현규-

자신감

-김용애-





# 2017년 자원봉사대축제를 마치며

지난 2017년 12월 15일(금) 자원봉사대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성촌의집과 지역사회일대에서 진행했던 **봉사자아카데미 / 별마을공작소 PART. I, II, III**의 최종 결과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별마을 상영관(결과물 및 활동사진 전시), 성촌25시 & 별마을금고, 미술전시회 및 체험, 요리대회 및 지역사회배달, 뷔페식사 및 랩 콘서트 등 늦은 시간까지 참여했던 성촌의집 이용자와 자원봉사자, 가족, 지역사회주민들까지 100여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봉사자아카데미 / 별마을공작소 PART. I (단편영화제작), II (레시피북만들기), III (랩메이킹)는 성촌의집 이용자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1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으로 각 파트별 청소년 워크숍을 실시하고 그 워크숍을 토대로 성촌의집 이용자들과 문화창작 작업을 실시함으로 지역 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취지로 기획,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대축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종체적으로 마무리 하며 그동안의 과정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PART. III에 작업했던 랩메이킹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성촌의집 이용자들의 관계가 그동안의 함께했던 시간이 쌓이며 서로간의 신뢰와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며 그것을 가사로 뽑아내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냈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 프로그램이 의도하고자하는 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서 활동하는 힙합가수 '슬래'가 직접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녹음 및 발표회, 마지막 콘서트도 함께하여 성촌의집 설립 이래 트로트 공연과 연주 공연이 아닌 힙합 공연을 같이하며 성촌의집 이용자분들과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대단원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거주시설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에 대해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첫발자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어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성촌의 집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고 거주시설이 지향하고자하는 모습을 갖추어나가는데 큰 의미로 남기를 바랍니다.

- 조주형 자립지원팀장 -

# Happy Day!

## 성년의 날 2 송년의 밤

2017년 성촌의집 송년행사를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잠시!!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고  
맛있는 뷔페 음식까지 즐길 수 있었던 별마을의  
송년행사 별별 이야기 ★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지난 2017년 12월 7일(목) 성촌의집 송년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용자, 원가정, 직원, 후원자 등 올해 함께한 많은 사람들과 한해를 돌아보며 고맙고, 수고했다고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만큼 현장의 열기도 매우 뜨거웠는데요. 우리들의 그날 밤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대하 *show! show! show!*



송년행사의 첫무대를 깜찍하게 장식한 무대는  
바로 바로~ 신입직원들의 공연이었습니다.  
직접 준비한 화려한 무대의상과 소품들이  
한 번 눈길을 사로잡고 개성 가득한 춤동작이  
두 번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도 질 수 없다!

성촌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이다!

성촌의집 가수들의 멋진 무대 함께  
김상 하시죠~



성촌은 감동을 싣고~  
이용자 가족의 편지 낭독과  
성촌의집 직원합창단의 합창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트위스트~ 트위스트 춤을 춥시다~  
송년행사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댄스팀!!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나야 나 나야 나!



여러분의 2017년의 마무리는 어떠셨나요? 성촌의집 가족들은 잠 못 이루는 송년의 밤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쁘신 중에  
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과 개인일정으로 참석 하시는 못하셨지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에도 한해를 돌아보며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광역시장 표창장 수상-이향란 사무국장



97년 11월 1일. 장애인생활시설 첫 근무 날, 커다란 배낭을 짊어지고, 사회복지, 그것도 장애인시설에서 일해 보겠다고 스스로 찾았던 그날. 힘겹게 언덕길을 오르며 어찌면 장애인거주시설에의 삶이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올해로 20년째. 처음 시작했던 그 길 위에 서서 앞으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좋아서 시작한 이 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시간 속에 함께 했었던, 이용자분들, 직원분들, 슈퍼바이저, 그리고 가족...소중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스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이 그래도 잘못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순간이었고 기문의 영광입니다. 성촌의집에서 근무하며 영광을 누리게 됨에 모든 직원분들과 이용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향란 사무국장]

## Super Social Worker 선발대회 수상-직원합창단



조직문화(通&UP) 만들기 프로젝트! 성촌의 목소리로 감동을 전하다~♪ 직원합창!

2017 인천사회복지사 송년파티 중 "Super Social Worker" 선발대회에서 성촌의집 직원합창단이 '나이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합창단이 결성 된지 이제 만 1년이 되어갑니다. 합창을 처음 접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처음에는 소리도 작고, 음도 틀리고, 박자도 못 맞추고~ㅋㅋ

그러던 중 '정예진 자원봉사자(반주 및 지휘)'님의 많은 도움으로 조금씩 소리가 들리고, 어느 순간 각자의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감사드립니다~^^

[직원합창단 별마을지기 일동]



## 올해의 우수이용자 수상-이신희님, 장근택님

12월 7일(목), 성촌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성촌의집 가족들이 모두 함께 선정한 올해의 우수이용자 수상이 단연 돋보였는데요. 지금 바로 그 영광의 수상자들을 소개합니다. 우선 우수이용자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짹! 짹! 짹! 수상하신 소감이 어떤신가요?



조용한 성격이며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저를 뽑아 주신 것 같습니 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에는 모두 건강하게 감기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신희]

상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 갈 때 동생의 훨체어를 릴 어주었던 것도 기억나고 내 방과 함께 쓰는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서 살겠습니다.

[장근택]



sungchon



❤️ 5,566개

sungchon #아빠 찾아 #산청군 #가족 #눈에 익은 얼굴

아빠를 만나러 다녀왔다. 이사를 해서 나는 처음 보는 집이었다. 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 25년여만의 만남. 조금은 어색하여 자고 가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다음에 오기로 하고 그동안 못 들었던 소식을 나누며 진수성찬인 집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오직 아버지만 보았다. 나와 닮은 아버지의 얼굴. 다시 기억해야지, 아버지의 얼굴. 여름에 또 올게요, 아빠. 고마워요.

sungchon



❤️ 6,005개

sungchon #산책 #파선 #다 같이 둘자 #공원 두 바퀴

매일 점심식사를 마치면 나에게 하나의 일상이 있다. 바로 산책이다. 우리 집 뒤편에는 작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운동기구들도 있고 천천히 걷기에 좋은 길이다. 원래 트레이닝복을 입고 산책을 나갔는데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점퍼도 같이 입고 갔다. 공원을 두 바퀴를 돌다가 동네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시간이었다. 내일도 산책은 계속될 것이다.



sungchon



❤️ 4,576개

sungchon #내가 자란 #활곡마을 #옛 생각 #꿈엔들 잊힐 리야

올해 내 꿈은 내 고향이었던 진도에 가보는 것이었다. 내가 태어나서 10대까지 있었던 곳이었는데 벌써 40여년이 흘렀다. 차를 타고 내가 자랐던 활곡마을에 도착해서 옛집을 찾아보았는데 이제 허물어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기억하던 학교도 있었고 저수지도 그대로였다. 또 저수지 뒤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었는데 그 선선에 올라가볼 수 있었다. 기대가 커던 만큼 아쉬움도 컸지만 고향에 와보니 옛 생각도 나고 추억을 회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sungchon



❤️ 3,585개

sungchon #용기 #자립 #파티피플 #for oneself #훈자 힘으로

며칠 있으면 30년 이상을 살았던 이 집을 떠난다. 집에서 살면서 함께 살던 친구들이 자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드디어 나도 용기를 내어 자립을 한다. 오늘 내 옷장 안에 있던 옷들과 물건들을 박스에 정리하는데 기쁨 반, 슬픔 반 마음이 상승생승 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지난 친구들이 건강하고 잘살라고 인사도 해주고 파티도 해주어서 기쁜 마음이 더 크고 자립에 대한 용기가 생겼다. 나가서 열심히 살 것이다. 아자!



# 미술관은 살아있다



## ◀〈따뜻한 엄마와 나〉

빨간 단풍이 이뻐  
이쁘고 따뜻해서  
병원의 엄마가 생각나요  
하늘과 맞닿은 나무가 좋아요

PHOTO BY GO YOUNG HEE



## ▲〈색깔이 물들다〉

나무가  
바람불구 쓰러지구  
떨어지구 물들어요  
미영의 가을

PHOTO BY KIM MI YOUNG



## ▲〈내 마음〉

이 나무는 나의 그늘진 마음과 같다.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주저하고 걱정을 먼저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그늘이 있다고 느껴진다.

PHOTO BY LEE SHIN HEE

위 사진은  
성촌의집 이용자가  
일상의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사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지금 만나라 갑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용자분의 원가정에서 낭독해주신 편지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이 편지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한 감동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촌의집과 원가정분들은 모두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용자분이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이용자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공통점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7년은 원가정분들과 성촌의집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었다면, 2018년은 성촌의집과 원가정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금의 관계를 확장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성촌의집에서는...개봉박두!!

기쁜 소식 공유해요  
(원가정통신문 발송)

함께 모여요  
(원가정모임)

우리집으로  
초대합니다  
(홍커밍데이)

아는 것이 힘이에요  
(원가정교육)

우리가 가겠습니다.  
(원가정방문)

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원가정모임 사업은 성촌의집과 원가정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원가정분들께서는 올해 많은 기대와 더불어 꼭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분들의 그리움이 반가움, 정겨움, 포근함으로 가득해지기를 기대합니다~^^**

- 김기철 거주지원팀장 -

안드렁하세요. 성촌의집 이영준 이용자의 동생 이영선입니다.



외내버가 성촌의집 가족이 된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가족은 자리에 서 향상상 함께해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인을 통해 성촌의집을 알게 되었고 상담을 받기위해 찾아가는 이곳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친절로 걱정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직원분들을 보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운 마음, 동생 걱정하는 외내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쁘다는 광경을 함께하지 못했는데, 직원분들이 그 빈 공간을 사랑으로 채워주고 함께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가족, 성촌의집! 냉정없이 가족분들을 위해 고민하시고 다양한 포로그램을 통해 세대차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작은 소리에도 구기 울여주시고 걱정과 칭찬을 아끼지 않은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향상상 성촌의집 가족분들이 건강하시도록 뒤에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2017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 2018년에도 향상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12.07. (목) 이영선 촬영



# 2018년 성촌의집 일년살이 "선택과 집중"



우리는 빨리가기보다 천천히  
함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것은 이용자 중심에 서서  
무엇이 옳은지를 묻고 또 물으며  
걸어갈 것이다.

- 이향란 사무국장 -

## 2018년 성촌의집의 일년살이는 어떠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들과 함께 현재 장애인복지의 서비스의 중심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탈시설-자립생활의 사회적 흐름과 시대의 요구에 맞춰 시설의 이용자들을 탈 시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립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의 고민은 이용자 서비스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성촌의집의 이용자는 자립을 희망하는 이용자. 조금의 지원만 있으면 자립할 수 있는 이용자.

성촌의집에서 서비스를 선택하여 생활하고 싶은 이용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며 노년기를 준비하는 이용자.

몸이 불편하신 이용자, 대화 할 때나 자신의 생각의 표현함이 불편하신 이용자, 둘 다 불편하신 이용자

## 이분들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가?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기존의 통합서비스팀을 나누기를 했다.

**자립과 지역사회네트워크 연계중심의 자립지원팀**  
**일상케어와 건강관리의 주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주지원팀**

이 팀을 이끌어갈 팀장들도 세우고, 대리와 주임, 팀원들도 다시 재조정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팀원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계획도 필요하며, 직원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힐링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또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건강지원팀의 주임을 세워 조직적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 별마을 메모리즈

## ★우리만의 여행



**제주도 - 하늘, 바다, 땅...우리는 모두 간다!** 2017년 10월 18일~10월 20일, 2박 3일로 여자들만의 그룹여행으로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가서, 배 타고 우도에도 갔다 왔고 드라이브 후에는 마음에 썩 들었던 숙소에서 푹 쉬었어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방법으로 제주도를 느꼈어요.



**해외여행(태국) -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2017년 10월 23일~27, 4박 5일로 태국여행(방콕, 파타야, 졸티엔)을 다녀왔어요. 처음가는 해외여행에 단 둘이 (이용자 1명, 직원 1명) 가서 조금은 긴장되었지만, 4박 5일 동안 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현지음식도 먹고 태국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다 왔어요.

## ★별마을 갤러리



2017년 12월 13일(수)~12월 14일(목), 가천길병원 갤러리에서 성촌의집 화가인 유성우 강사와 진행된 미술교실이 이용자분들과 지역아동들의 작품을 봄내기 위하여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미술교실을 통해 뜻밖의 재능을 발견한 분들도 계십니다. 1년 동안 미술교실에 참여한 지역아동, 성촌가족들, 동암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미술대회를 열어 선의의 경쟁도 펼치고 우수작들 또한 탄생하게 되어 더욱 더 다양하고 풍성한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 ★삶이 있는 이야기



성촌의집에 겨울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인천농산물의 후원과 이용가족분들과 직원들 모두의 단합으로 만들어진 겨울김치. 땅속에서 깃 깨낸 김치의 맛 궁금하시죠? 김치드시려 오세요~^^

원가정과 성촌의집의 콜라보레이션! 이용자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고 응원합니다.^^\n



어둡고, 무겁게만 생각되어졌던 웨딩강강의가 긍정박수 및 긍정감정 치유 및 신나는 노래에 맞추어 적절하게 울음을 하면서 모두가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위치한 평온의 숲을 방문하여 평온마루(동안당), 턱동산 등 견학하였습니다.

하반기 스포츠 여가활동으로 시작된 탁구! 뜻밖에 관심과 호응 얻었고 이로 인해 탁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어요~ㅋ



2017년에는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진행하며 찍었던 사진을 앨범으로 제작하였습니다.

2017년 별마을 이용자, 원가정, 직원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성촌의 겨울이 따뜻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 인천중앙교회  
2017년 11월 07일(화)



영양만점 사과와 쌀

♡ 인천농산물주식회사  
2017년 11월 23일(목)



겨울을 준비하는 김장의 재료

♡ 동그라미봉사단  
2017년 12월 10일(일)



성탄절 맞이 프로그램

♡ 하나은행  
2017년 12월 18일(월)



한국인의 든든한 주식 쌀



♡ 비트인  
2017년 11월 20일(월)



없던 흥도 생겨나는 난타공연

♡ 가족공원사업단 | 2017년 12월 21일(목)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7년 12월 22일(금)



이용가족들의 든든한 겨울준비



기다리아저씨는 지역사회에서  
뒤에서 뚝뚝히 성촌의집에  
도움을 주시는 곳을 찾아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 유진기업



유진기업은



따뜻한 밥이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다.

유진기업은 인천 남구에 있는 금속 가공제품제조업체입니다.

유진기업 대표께서는 따뜻한 쌀밥 한 공기가 아쉬운 시절을 떠올리며, 성촌의집 이용자분들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는 대표의 정성어린 마음이 담긴 스테인리스 밥솥을 선물해주셨습니다.

노후한 밥솥에서 새 밥솥으로 교체된 덕분에 성촌의집 이용가족들은 윤기 자르르한 쫄진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진기업과 성촌의집이 함께 써나가게 될 이야기들도 기대합니다.

## 기술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는

자립이란?

기본적 의미 :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

성촌의집에서의 의미 : 밥 먹고, 출근하고, 놀고, 잠자는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성촌의집은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기술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에 전달되었나 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성촌의집 이용자분들의 보편적인 삶에 있어 필요한 주방용품을 구입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손가락에서 그릇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비교하고,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여 구입할 생각을 하니 지금부터 설렙니다.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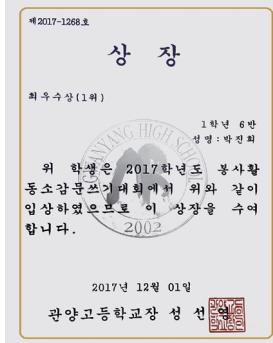
촌의집 이용자분들이 모~두 자립하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에게 감사의 말

씀 전합니다~^^



# 별마을에 도착한 기쁜 소식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래의 글은 2017년 하반기부터 공동모금회사업의 일환이었던 ‘책읽기 모임’활동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박진희 학생의 글입니다. 시와 자연, 일상에 대해 별마을 이용자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좋아하는 책을 찾아서 함께 읽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느꼈던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여 교내 글짓기 대회(자원봉사활동 소감)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별마을 이용자분들의 행복과 나눔의 가치를 찾기 위해 함께 해주신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행복을 함께 찾아가는 나눔의 귀한 시간



관양고등학교 박진희

평소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눔의 삶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넬슨 만델라의 영향력 있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 다른 이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중학교 때보다 좀 더 진실 되며 보람된 자발적 봉사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예민한 시기이니 만큼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인천에 있는 자체장애인거주시설 성촌의집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장애인을 돋고 불편한 점을 해결해드리는 것만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3달 정도 자원봉사를 하고 난 후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을 돌봐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 곳이 그 분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집이자 보금자리인 따뜻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곳은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자유롭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희망을 키워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곳을 통해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글을 다 읽고 쓰실 줄 아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행동, 그림, 색깔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도 모두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방법에서 저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집지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옮겨 붙이는 활동이었습니다. ‘좀비’를 싫어하며 ‘소통’을 좋아한다고 발표했던 장애인 한 분의 이야기가 아프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좀비와 소통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단어여서 전혀 이해가 안 되었었는데 요즘같이 대화와 소통이 없는 삶이 잔인한 좀비와 같이 느껴지고 소통이 없는 곳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잔인한 곳과 같다고 말씀 하셔서 그 분들이 느끼는 소외와 외로움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이 자신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집을 그렇게 폐쇄적이고 끊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러한 편견을 사람들이 갖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소중하고 따뜻한 추억을 많이 남기실 수 있도록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분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후원자 명단 (2017.11.01.- 12.31.)

### + 신규후원자를 소개합니다 +

김기순, 윤재경

### + 비지정후원금

개인 : 고종원, 김경진, 김도환, 김용애, 김호연, 김현보, 박미정, 박점숙, 박철생, 변진선(별하나봉사단), 신진자, 유계월, 이구형, 이말선, 이준희, 이향란, 전경제, 정민영, 한선미

단체 : 가족공원사업단, 건강길약국, 교촌에프앤비, 농산물주식회사. 동그라미봉사단, 라성약국, 익산유암, 인천중앙교회

CMS : 김기순, 김인수, 김은미, 김현수, 김현경, 김호연, 박경진, 박미정, 변문수, 소형순, 손대원, 윤재경, 이구형, 이상진, 이 선, 이수일, 이은주(부평우체국), 이은주(성촌의집), 정금자, 정민호, 조광매, 조근태, 조성란, 조성숙, 조성순, 최경자, 한연숙

### + 지정후원금

이용자결연후원금 : 이은주, 임미정

송년행사 지정후원금 : 성촌재단

### + 후원물품

이용가족 간식지원 : 부광다문화센터, 아동복지시설연합회, 크롬

이용가족 생필품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용가족 의약품지원 : 권영수, 김용애, 라성약국

이용가족 주부식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진희봉사자 어머님, 순복음교회, 인천중앙교회, 조주형, 하나은행

이용가족 김장재료지원 : 인천농산물주식회사

##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17.01.01.- 12.31.)

세입		세출	
전년도 이월금	26,264,081	공공요금 외 사무비	16,916,070
지정후원금	40,273,300	재산조성비 (보일러 교체 외)	28,480,000
비지정후원금	34,090,300	난방비 외 운영비	3,593,830
법인전입금 후원금	2,900,000	이용자 프로그램 사업비	37,431,640
기타예금이자	41,067	반환금 (공동모금회 이자 및 캐쉬백 반납)	20,593
기타접수입	70,178	차년도이월금	17,196,793
합계	103,638,926	합계	103,638,926

## ▣ 자원봉사자 명단 (2017.11.01.- 12.31.)

★ 조직문화 직원합창 – 반주와 지휘 : 정예진

★ 조직문화 직원요가 – 요가강습 : 홍유정

★ 도란도란봉사단 – 이용가족 공연지원

송태영단장, 김경자, 김재학, 김학수, 김훈자, 동동, 박종희, 신정자, 윤석구, 이선균, 임종태, 한미란, 한종덕

★ 봉사자아카데미 놀다(NOLDA) : 노래만들기 진행

김동주, 김지희, 김현정, 노연우, 노유민, 노현우, 라자바뜰, 박소이, 박종인, 성빈, 소찬비, 손우진, 송의현, 신정빈, 안현솔, 원승연, 유성, 이희영

★ 상정중 우리들봉사단 – 이용가족 정서지원

김형진, 강건주, 강건희, 김민교, 유나경, 이은서, 이지원, 정수연

★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동그라미봉사단 – 이용가족 프로그램 진행

오헌주회장, 김경숙, 김인선, 나타현, 이시연, 임충휴, 최계한

★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태양봉사단 – 이용가족 중식지원

김미정, 김은심, 김정은, 김영분, 김춘숙, 나영복, 백숙림, 심명임, 오헌주, 이영로, 이명석, 임충휴, 정효영, 홍유림, 황세동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 이용가족 식사지원

윤순석지사장님 외 6명

★ 가족공원사업단 – 이용가족 프로그램지원, 시설물관리

서유택단장님 외 5명

★ 비트인 – 이용가족 프로그램지원(난타공연)

한상현단장님 외 4명



- 성촌의집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체되는 제도

####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민은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협은행 301-0072-5929-41

우체국 100115-01-000694

###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 모금함 설치방법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 해피빈콩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콩배너를 클릭하고

콩(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콩 기부

###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생활용품, 여성용품)

사무용품 (A4용지, 파일, 각종 문구류)

의료용품 (의약품 및 훈제어, 보조기구)

교육기자재 (학습지원을 위한 물품)

###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 BUS/버스

마을버스 : 531, 532A, 532B, 533, 535, 536, 537, 538, 539, 564-2(동암역 하차)

시내버스 : 2, 111-2, 34, 45번(심정2동주민센터, 보훈회관 하차)

####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역(1번 출구)

인천1호선 : 간석오거리역(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3번 출구)

### ♥ 이마트 마일리지 후원

이마트 쇼핑 후 영수증으로 이마트 매장에 비치된 적립기 또는 이마트 모바일 앱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나눔활동입니다.(이마트지점 : 인천점 0393)



별마을이야기 2018년 첫 번째 호 (통권22호)

발행처 | 성촌의집 | 발행인 | 이은주 | 편집인 | 이향란 | 편집위원 | 강해인, 김기철, 배수경, 유성우, 장순, 장연희, 조명규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심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http://www.sungchon.or.kr) | 디자인 | 혜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